

5대 종교 손잡고 해남 '달마고도 평화순례'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
4월 8~9일 종교인 등 500명 걷기
미항사~물고리재 다도해 따라 18km
작은 음악회...화합·통일 기원식도



금강 스님

“천년의 세월을 품은 태고의 땅으로 낫달을 찾아 떠나는 구도의 길. 해남 미항사와 달마산 일원에 조성된 ‘달마고도’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달마산 중턱 열두 개 암자를 연결하는 길이다. 지난해 해남군과 미항사가 공동으로 기획해 조성한 달마고도는 총 길이 17.74km로, 일



해남 미항사와 달마산 일원에 조성된 ‘달마고도’는 수려한 풍광과 호젓함이 깃든 아름다운 길이다. <해남군 제공>

반인도 완주할 수 있는 길이다. 미항사에서 큰바람재, 노시랑골, 물고리재로 이어지는 구간은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다. 구간에는 도솔암, 동백나무 군락지, 편백나무 숲 등 역사자원과 산림자원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5대 종교인들이 달마산 둘레길을 걸으며 종교 화합과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 성직자와 신도들이 참여하는 ‘달마고도 평화순례’ 행사를 내달 8~9일 연고 밝혔다. 금강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시국에 5대 종단의 성직자와 신도들이 함께 종교 간 화합뿐 아니라 평화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달마고도’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자는 취지도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개신교 손원영 목사, 성공회의 윤정현 신부와 오인숙 수녀, 천주교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강신옥 수사, 천도교 이우원 선도사, 원불교 김법성 교무, 불교 현장 스님 등 여러 종교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5대 종교 남성 수도자들 교류 모임인 ‘호령회’와 여성 수도자들 모임 ‘삼소회’를 중심으로 모인 성직자들이다. 주최 측은 전국에서 500여 명의 종교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이번 행사는 보성 대원사 회주 현장 스님의 제안으로 계획됐다. 금강 스님은 “호남지역에 5대 종교인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달마고도 평화순례를 갖자는 제안이 왔다”며 “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원하는 것도 뜻 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행사 첫날인 내달 8일 밤에는 미항사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는 종교 간 친목과 우정을 다

지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3대 종교 여성 수도자들 모임인 ‘삼소회’의 노래, 인도 무용을 정공한 허다송씨의 공연, 이정재씨의 남도 국악, 박양희 씨의 명상음악이 펼쳐진다. 천주교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강신옥 수사는 성악을 들려준다. 9일에는 미항사에 모여 기원식을 진행한다. 화합과 통일을 기원하는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고, 이후 5명씩 손을 잡고 달마고도를 걸을 예정이다. 금강 스님은 “‘달마고도’가 조성된 이후 주말 평균 1000여 명 가까운 방문객이 찾고 있다”며 “평화순례를 계기로 남북 교류 물꼬가 화합과 평화의 장으로 확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성직자뿐 아니라 평신도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미항사 홈페이지 참조. 061-533-352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 23일까지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진행하는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가 ‘전시 테크니션’ 기초 과정과 ‘축제기획자’ 현장실무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국내 최초로 개설된 ‘전시 테크니션’ 과정은 작품설치 및 프로젝트 맵핑에 이르는 기초과정부터 설치, 영상, 음향의 전문화 과정인 심화과정을 거쳐 현장실습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전시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ACC의 대표 축제들과 함께하는 ‘축제 기획자 현장실무 과정’은 상반기에 진행되는 ‘어린이·가족문화축제 How Fun4’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실습과정이 포함돼 있다. 관련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2017년 ACC 축제기획자 기초과정 수료생들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마감은 오는 23일까지다.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는 ACC 자원 환경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현장의 다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각 분야별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7년에는 4개 분야에서 150여 명을 배출했다. 올해는 어린이문화콘텐츠 기획자, 융·복합 콘텐츠 기획자, 음향디자이너, 미디어 아티비스트, 문화기술 현장실무 등 전체 8개 분야로 확장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의 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

박물관서 즐기는 바로크 음악

광주박물관 17일 ‘왕이 사랑한 보물’전 연계 음악회

“박물관에서 바로크 음악 즐기세요.”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오는 17일(오후 5시) 중앙홀에서 특별전 ‘왕이 사랑한 보물’과 연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내달 8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 ‘왕이 사랑한 보물’은 18세기 독일 작센의 선제후이자 폴란드 왕이었던 강건왕 아우구스투스 2세의 수집품 가운데 명품만을 엄선해 소개하는 전시다. ‘바로크 음악을 만나다-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시대’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시대 연주됐던 바로크 음악을 감상한다.

이번 전시실 음악회에서는 당시 독일 음악 중심지였던 드레스덴 궁정에서 사랑받은 음악들 위주로 꾸며진다. 음악의 대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비롯해, 바로크 오페라의 기초를 다진 장 바티스트 륄리와 드레스덴 궁정에서 가장 사랑받은 음악가 요한 아돌프 핫세의 음악을 바로크 악기와 소프라노 연주로 감상한다. 연주를 맡은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은 바로크 시대 음악과 악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주를 선사할 예정이다. 무료 공연. 062-570-703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0대의 첼로, 하나의 하모니 21일 광주문예회관 ‘보첼로 앙상블’ 음악회

‘스무명의 연주자가 들려주는 첼로 오케스트라 매력에 빠져보세요.’ 광주문예회관이 진행하는 기획 공연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첫 무대가 마련된다.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첫 공연은 ‘보첼로 앙상블과 함께하는 20 첼로’다. ‘보첼로 앙상블’은 지난 2015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100인의 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첼로 오케스트라의 매력에 빠진 해외 유학파 솔리스트들이 올해 새롭게 결성한 그룹이다. 이들은 정통 클래식 곡 뿐 아니라 영화음악, 재즈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멤버



송지현

유승범

는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송지현, 독일 드레스덴에 음대 출신 진민수, 하노버 음대 출신 유승범, 신원아, 조명환 등 5명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보첼로 앙상블 이외에 14명의 주자가 합류, 모두 20명의 연주자들이 웅장한 첼로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보여준다. 연주 레퍼토리는 오펜바흐의 ‘볼레로’, 파헬벨의 ‘개논’, 바흐의 ‘첼로 모음곡 1번’, 생상스의 ‘백조’, 피아졸라의 ‘사계’, 영화 ‘미션’ 중 OST 중 ‘가브리엘 오보에’, ‘사운드 뮤직’ 중 ‘에텔바이스’,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 등이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문의 1588-7890. /전은재기자 ej621@kwangju.co.kr

청년문화 일자리 사업 참여단체 22일~23일 공모

광주문화재단(대표 김윤기)이 청년문화 일자리 시범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문화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6개월 동안 광주형 생활임금을 지원(월 200만원 내외)하고, 문화예술단체에 청년 인력을 배치해 현장실무를 경험하게 하는 등 실업 문제와 문화예술 인력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일자리 시범사업은 3월에 청년문화 일자리 참여 단체를 모집하고, 근무를 희망하는

청년인력을 4월에 채용해 실무에 배치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광주 소재 문화예술단체이며, 6개월 간 청년인력 인건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gjcf.or.kr) 또는 광주시청(gwangju.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22일~23일 오후 6시까지 광주문화재단(빛고을시민문화관 3층 정책연구교류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433. /박성천기자 skypark@

천만홀릭 커밍순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
CHANNEL A